열왕기와 역대기에 나타난 솔로몬 성전구조의 주석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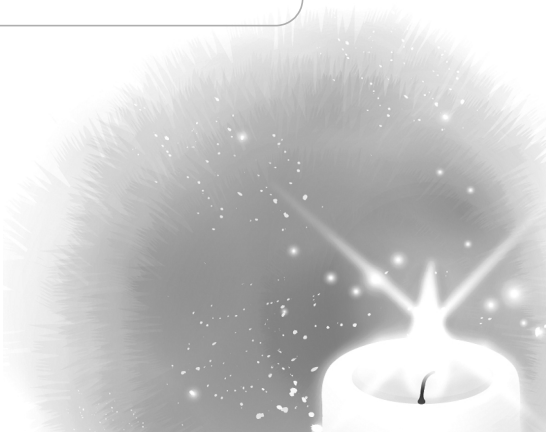
Exegetical Problems of the Structure of Solomonic Temple in Kings and Chronicles

신 득 일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언 | 11
2. 성전의 전체 구조와 그 의미 | 12
   a. 주랑과 성소의 양식과 장식 | 12
   b. 지성소의 양식과 장식 | 17
3. 성전구조의 주석적 문제점 | 20
   a.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계단 | 20
   b.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과 문 | 22
   c. 두 기둥: 장식과 이름 | 23
   d. 성전 뜰에 있는 바다 | 27
4. 결어 | 29



요약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타난 솔로몬 성전구조의 주석적 문제

본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아인 다라의 신전에 의해서 재구성된 솔로몬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한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르게 묘사하는 성전구조에 대한 본문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상충적인 내용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솔로몬 성전과 가장 유사한 그 신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와 같은 내실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유추하여 성전의 지성소를 높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높은 돌계단이 있는 것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그 신전 앞에 있는 주랑의 담장 안에 두 기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전 앞의 두 기둥도 주랑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은 성소에 그런 큰 계단이 있다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 또한 본문의 증거는 두 기둥이 건물과는 별개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대한 본문의 차이도 그렇게 보일 뿐이지 두 책의 본문 간에 어떠한 모순이 없다. 성전의 뜰에 있는 바다의 용량에 대한 언급도

두 본문이 각각 이천 밧과 삼천 밧으로 다르게 기록되었지만 도량형의 차이를 적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본고는 성경외적인 요소가 성경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고,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성경이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약

Exegetical Problems of the Structure of Solomonic Temple in Kings and Chronicles

주요어

성전, 성소, 지성소, 야긴과 보아스, 바다

Abstract

Exegetical Problems of the Structure of Solomonic Temple in Kings and Chronicles

Prof. Dr. Deuk-Il Shin

This article is a study about the structure of Solomonic temple which was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temple that was relatively recently found in ’Ain Dara. Besides, it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texts which seemingly give descriptions on the structure and furnitures of the temple in Kings and Chronicles. There was a stone staircase leading to inner chamber such as Holy of Holies in the temple which is closest Solomonic parallel. Archaeologists put high stairs between sanctuary and Holy of Holies of the temple which they regarded the later located in a high place on the analogy of the stairs of the findings. Finding that there were the vestiges of two pillars enclosed by wells of the porch, they came to believe that the two pillars in front of the porch of the temple supported its roof. However, the biblical texts give no room for such a large staircase in the sanctuary but prove that they were free standing pillars. As far as the textual problems concern, the Chronicle’s reference to the curtain between sanctuary and Holy of Holies may perplex readers but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texts of Kings and Chronicles. In the case of the capacity of the Sea, two texts of Kings and Chronicles respectively suggest two thousand baths and three thousand baths but there is no problem to understand the different figures because the numerical value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measurement. Thus, the conclusion emphasizes that extra-biblical materials cannot substitute for biblical contents and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ible with basic reliability on biblical texts.

Keywords | temple, sanctuary, Holy of Holies, Jakin and Boaz, the Sea

1. 서언

솔로몬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상(6; 7:13-51)과 역대하(3-4)에 소개되어있다.[1] 그렇지만 현대 독자들이 이 두 본문을 읽고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다: 1) 두 본문의 기록이 현대인이 성전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지 않은 점, 2) 두 본문 간의 상이한 표현, 3) 본문에 나타나는 수치와 관련된 오류, 4) 성전설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현대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점. 여기서 처음 두 가지 이유가 재구성을 위한 주된 난관이 된다.

최근의 두드러진 경향은 고고학적 발굴물에 기초하여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나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들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높은 계단을 설치하는 것과 성소 앞의 두 기둥이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것이다.[2] 특별히 터기 동남부 시리아 알렙포 인근지역인 아인 다라에서 1980년대에 발굴된 '아인 다라 신전'은 그 구조가 솔로몬의 성전과 가장 유사하다. 단지 성소와 주랑 사이에 작은 방으로 '대기실'(antechamber)같은 게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

1) 성소건축을 묘사하는 역대기 본문은 열왕기 본문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었다. 열왕기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으로 그치는 것은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규모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 그는 자기 시대에 상대적으로 초라한 성전규모를 의식하고 기록한 것 같다(스 3:12-13).

2) 층계가 없는 것을 재구성한 그림: M. A. E. Smith, et al, *Holman Book of Biblical Charts, Maps, and Reconstructions*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142; A. E. Hill, *1 & 2 Chronicle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3), 384.

신전 뜰에는 많은 그룹이 늘어서 있는데 얼굴은 사람 얼굴, 사자 몸에 날개가 달려있다. 이 신전에는 내소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성소에서 내소로 인도하는 계단 같은 경사로가 있다. 여기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층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 그 신전의 터에는 기둥의 터가 벽으로 싸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 성전 앞의 두 기둥이 지붕을 바치는 것으로 묘사하게 되었다.[3)]

그렇지만 이방종교의 신전구조를 제공하는 고고학적 발굴물에 근거를 두고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생각하고, 본문의 주석적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검정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구조물과 열왕기와 역대기 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본문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세세한 문제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두드러진 문제인 성소 안의 '층계'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전 앞의 '두 기둥' 그리고 성전의 기구인 '바다'에 한정할 것이다.

2. 성전의 전체 구조와 그 의미

a. 주랑과 성소의 양식과 장식

성전건축에 관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성전의 규격을 다루고(왕상 6:2-10, 16-17; 대하 3:2-5a) 후반부는 장식을 다룬다(왕상 6:15, 18, 21-23; 대하 3:5b-7).

---

3) John Moson, "The New 'Ain Dara Temple: Closest Solomonic Parallel, " *BAR* May/June (2000): 20-35; Hershel Shanks, *Jerusalem's Temple Mount*: *From Solomon to the Golden Dome* (New York: Continuum, 2007), 123-38.

첫째, 성전의 규격은 길이가 육십 규빗, 넓이가 이십 규빗 그리고 높이가 삼십 규빗이다(왕상 6:2). 역대기는 규빗의 길이에 대해서 "옛날에 쓰던 자 ~ 규빗"이란 말을 쓰는데(대하 3:3) 이것은 이스라엘이 쓰던 측정 기준이 시대별로 다르다는 뜻이다. 규빗(*'ammā*)이란 문자적으로 '팔의 앞부분'을 의미한다. 즉 보통 신장을 가진 사람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가리킨다(신 3:11). 이 말은 규빗이란 단위가 정밀한 길이를 뜻하지 않다는 것이다. 카우프만(Kaufman)은 손바닥 폭의 수에 따라서 세 종류의 고대 히브리 규빗을 소개했다: 다섯 폭, 여섯 폭, 일곱 폭. 그는 모세의 규빗은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하면서 여섯 폭이나 24 손가락 폭의 길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법궤와 회막에 쓰인 기준은 한 규빗이 42.8센티미터였다고 한다.[4] 이 계산이 맞다면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 지대의 크기는 약 26미터 × 약 8.6미터였을 것이다. 이것은 성막의 두 배가 약간 넘는 크기이다(출 26:2). 이것은 단순히 성막의 터를 두 배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청사진이 바로 모세시대의 성막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성전건축과 기구의 제작 항목이 성막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

성전 앞에는 그 건물과 연결된 주랑(낭실)이 있었다. 이것은 현대 건물에

---

4) A. S. Kaufman, "Determining the Length of the Medium Cubit, "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6 (1984): 120 – 32. Powell은 바벨론 역사에서 규빗을 다섯 개의 길이로 구분했다: 30 손가락(± 50 cm), 30 손가락의 두 배의 두 규빗(± 1m), 보폭 규빗(± 75 cm), 24 손가락 규빗(± 50 cm)과 아케메니드 왕실 규빗. M. Powell, "Masse und Gewicht, " in Erich Ebeling et al. (ed),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7 (Berlin: Gruyter, 1928), 457 – 517.

5) Van Seters는 역대기의 연속성있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역대기 기자가 성전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세 가지 '자료'를 가졌다고 한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건축에 대한 열왕기의 본문과 성막제작에 대한 제사장문서의 묘사(출 25-31)와 자기 시대의 성전이라고 한다. John van Seters, The Chronicler's Account of Solomon's Temple-Building: A Continuity Theme, in M. P. Graham, et. al. (ed.), *The Chronicler as Historian*, JSOTSS 23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85.

서 현관과 같은 공간이다. 그것은 성전 건물에서 달아낸 것과 같기 때문에 그 폭은 이십 규빗으로 같고 길이는 십 규빗으로 직사각형으로 생겼다.[6] 그런데 역대기는 그 높이가 백 이십 규빗이라고 했지만(대하 3:4) 성전의 크기와 조화가 되지 않고 고대사회의 건물로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낭실의 높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소와 연결된 것으로 보아서 같은 높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높이가 삼십 규빗일 것이다.

둘째, 주랑과 대전을 주로 금으로 장식되었다. 물론 성전의 입구에 해당하는 낭실 내부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는 인상을 받지만 부분적으로 덧대었을 수도 있다(대하 3:4). 왜냐하면 역대하 3:6에서 보석을 박아서 장식하는 것도 같은 동사 '입히다'(ṣāp̄ā)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성전 내부장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금이다. 금은 귀하고 유연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었다. 금은 종종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분의 거룩성과 위엄과 불변성을 상징한다.[7] 그 가운데 순금이나 정금은 순도가 가장 높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정제된 것이다. 성경은 그런 물질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8] 금은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욥 22:25-26), 메시야적인 복(사 60:17)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벧전 1:7)을 상징한다. 이런 상징성이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것이다.

---

6) 주랑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될 여지도 있다. 열왕기의 기록은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으나 역대기의 묘사는 정사각형으로 보도록 한다. 왜냐하면 '그 집의 너비'에서 히브리어 *habbayiṯ* 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7) L. Ryken,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Leicester: IVP, 1998), 557.

8) Cf. M. Lurker, *Wörterbuch biblischer Bilder und Symbol* (Munich: Kösel Verlag, 1973), 119; 애굽 사람들에게는 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금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들, 특히 태양신 '레'의 금속으로 여겨지고 그 불변성은 사후세계의 지속성에 대한 형상으로 간주된다." O. Heinemann, "Die 'Lade' aus Akazienholz: ägyptische Wurzeln eines israelitischen Kultobjekts?" *Biblische Notizen* 80 (1995): 35.

"대전"은 문자적으로 그냥 '큰 집'을 의미하는데[9] 여기서는 성막에서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 대전의 천장을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대하 3:5). 이 잣나무가 레바논에서 수입한 길리기아 전나무(Cilician Fir)일 것이다. 그 나무가 지붕 전체의 재료가 아니고 지붕의 서까래를 만드는데 백향목도 쓰였다(왕상 6:9). 그 천장을 순금으로 입히고 거기에 종려나무와 사슬형상을 새겼다. 왜 종려나무를 성소의 천장에 새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의 용례를 보면 쇠하지 않는 굳건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시 92:12).[10] 그래서 그 나무는 하나님이 생명의 시여자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성전이 한 때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낙원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갖게 하고 그 장소가 생명의 장소인 것을 증거한다.[11] "사슬 형상"이라는 것은 열왕기에는 놋기둥의 장식에만 해당되는데(왕상 7:7) 역대기는 천장에도 사슬 모양의 장식이 있다고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장식했다.[12] 그런데 그때 사용한 금이 바르와임 금이라고 한다(대하 3:6). 이 장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다. 아마도 금이 발견된 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일 것이다.[13] 성소

9) 히브리어로 '성전'을 뜻하는 '헤이칼'(לֵהָיִ)이란 말은 아카드어 '에칼루'(*ekallu*)에서 왔다. 그것은 '큰 집'이란 뜻으로 원래 왕궁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신전에도 적용되었다. A. L. Oppenheim et al. (ed.),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Oriental Institute, 1956), 52-55.

10) H. J. Kraus, *Psalms 60 – 150*, CC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229.

11) Ohmann, *Kronieken van het koninkrijk*, (Bedum: Scholma, 1991), 26.

12) 라틴어 역은 "그가 값진 대리석으로 성전의 바닥을 깔았다"고 번역했다.

13) D. Clines,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umes* 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8), 759; L. Koehler & W. Baumgartner et al. (ed.),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New York: E.J. Brill, 2000), 964.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아람어로 기록된 '창세기 묵시록'(2.23)에 '파르바인의 땅'이란 말이 나오지만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없다. '파르바인'은 '파르바임'의 아람어 형태다. 이 이야기는 단지 므두셀라가 성경의 전승에서 금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이국적인 장소로 멀리 여행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f. Joseph A. Fitzmyer, *The Genesis Apocryphon of Qumran Cave I*: A Commentary (Biblica et Orientalia; Rome, 1966), 44, 83-84.

의 내장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금으로 성전을 입히고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도 입혔다는 것과 그룹들을 아로새겼다는 것이다(대하 3:7). 금으로 내부 장식을 한 것만으로도 화려할 텐데 거기에 그룹들을 새겼다는 것은 그 찬란한 영광을 더하는 의미가 있다. 그룹의 형상은 법궤위에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출 25:18-20). 그렇지만 성전의 벽에 있는 것은 그룹의 모양을 새기는 것이다. 구약은 그룹의 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해주지 않는다. 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것은 고대사회에서는 그룹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인 그룹의 모습은 고대근동에서 잘 알려진 것이다. 그룹은 신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상상의 동물과 연결되어 있다. 그 모습은 사람의 얼굴에 날개를 가진 황소의 얼굴이나 또 사람, 황소, 사자나 독수리의 몸의 요소와 결합된 혼합체로 묘사되었다.[14]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과 그런 혼합체와 일치하는 것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에 대한 묘사와 기능은 다양하다. 첫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창 3:24); 둘째, 성막의 열 개의 휘장에 있는 수놓인 그룹(출 26:31; 36:35); 셋째, 하나님의 동작과 관련된 그룹(삼하 22:11; 시 18:11; 겔 1, 10); 넷째, 하나님의 산에 있는 그룹(겔 28:14, 16); 다섯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본 내소의 벽과 현관문에 새겨진 그룹(겔 41:18, 25); 여섯째,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벽면에 새겨진 그룹(왕상 8; 대하 3:7)이다. 이 가운데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그룹의 기능은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히 9:5).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든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고대 사람들에게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

14) D. N. Freedman and P, O'Conner, "kerub, " in G. J. Botterweck and H.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V (Stuttgart: Kaiser, 1995), 331 – 32.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혼합체 형상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었던 것이다.[15] 성소의 내부에 이렇게 그룹 형상을 아로새김으로써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초월성이란 속성을 인식하도록 했을 것이다.

b. 지성소의 양식과 장식

지성소 건축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두 가지 내용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전반부는 지성소의 규격을 알려주고(왕상 6:20; 대하 3:8) 나머지 부분은 지성소의 내장과 장식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었다(왕상 6:21-28; 대하 3:9-14).

첫째, 지성소의 넓이는 가로 세로 이십 규빗으로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열왕기 본문은 그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고 알려준다(왕상 6:20). 그래서 지성소의 크기는 한 면이 이십 규빗의 정육면체다. 지성소란 '코데쉬 핫코다쉼'인데 문자적으로 '거룩들의 거룩'이란 뜻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 최상급을 의미한다.[16]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the Most Holy Place)이란 말이다(RSV, NEB, NIV, NKJV, NRSV, ESV). 열왕기 본문은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라고 이 공간의 목적을 밝히면서 그 곳을 "내소"(*dᵉbīr*)라고 했다(왕상 6:19-20). 이 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안쪽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성전의 내실은 지성소를 말한다.[17] 언약궤가 사라진 시대

---

15) Elie Borowski, "Cherubim: God's Throne?"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1:4 (1995): 36 – 41.

16) 히브리어 최상급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속격관계를 만들어 최상급을 표시한다. 이것은 '노래 중의 노래'를 '아가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신득일, 『구약히브리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57c.

17) 쿰란 제4동굴에서 발견된 "안식일 제사의 노래"(4QShirShab)에는 이 내실이 "왕의 내소, " "제사장의 내소, " "집의 내소"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II, 384.

에 살았던 역대기 기자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그 대신 '지성소'라는 말을 쓰면서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했을 것이다.

둘째, 내부 장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본문은 열왕기에는 없지만 지성소는 순금 육백 달란트로 입혔다고 한다(대하 3:8). 한 달란트가 삼천 세겔이고 무게로 약 삼십 킬로그램인 것을 감안하면[18] 육백 달란트의 금은 약 십팔 톤에 해당하는 무게로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금을 말한다.[19] 이것은 솔로몬이 모든 지파에서 거두는 일 년 세금 총량과 맞먹는 양이다(대하 9:13).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제공한 십만 달란트의 금에 비하면 소량에 불과하다(대상 22:14). 그 많은 양의 금으로 어떻게 지성소 전체를 입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금으로 지성소를 아름답게 치장함으로써 그것은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표현하는데 쓰였다.

역대하 3:9에서는 열왕기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재료인 못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못 무게가 금 오십 세겔이요"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못이 아닐 것이다. 한 세겔을 약 십 그램으로 계산하면 금 못의 무게는 오백 그램에 지나지 않는다.[20] 그리고 그 금은 순금이 아니라 보통 금으로서

---

18) 달란트에는 '경' 달란트와 바벨론에서 쓰는 '중' 달란트가 있다. 전자는 약 30 킬로그램, 후자는 약 60킬로그램에 해당한다. D. J. Wiseman, Weights and Measures, *New Bible Dictionary*, 1235.

19)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Rudolph는 이 숫자를 열두지파의 상징(12×50)이거나 금으로 솔로몬에게 내는 일 년 세금으로 본다. Wilhelm Rudolph, *Chronikbücher*, HAT (Tübingen: J. C. B. Mohr, 1955), 203; Mosis는 육백이란 숫자는 열두 지파의 배수에서 나왔고 제2성전의 지성소에는 금이 없고 또 열왕기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숫자는 역대기 기자에 의해서 그려진 성소의 탁월한 완전성을 표현한다고 한다. Rudolf Mosis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es, Freiburger theologische Studien* (Freiburg: Herder, 1973), 142; Japhet는 본문비평을 통해서 육백 달란트의 금이 지성소에만 쓰인 것이 아니고 성전 전체에 쓰였다고 한다. Sara Japhet, *2 Chronik*, HThKAT, (Freiburg: Herder, 2003), 51-2.

20) 세겔에 대한 다양한 무게를 제시할 수 있지만 성전의 세겔은 평균 10그램 정도로 본다. Wiseman, Weights and Measures, 1235.

합금일 것이다. 그래서 귀한 금속을 쓰면서도 좀 더 강도가 높은 금속을 못으로 사용했던 것 같다. 이 못은 지성소의 금을 입혀서 고정시키는데 드는 못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락에 대한 언급은 열왕기에 비해서 너무나 간단하다. 그 위치, 모양, 크기나 개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열왕기 본문은 그것들이 지성소의 벽을 연접해서 돌아가면서 지은 다락이자 골방이다(왕상 6:5). 그것들도 금으로 입혀서 성전의 찬란함을 드러냈다.

남은 지성소의 장식은 그룹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역대기 본문은 그룹의 높이를 제외하고는 열왕기와 같이 그룹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펼친 날개의 전체 길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대하 3:11, 13). 그룹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쪽 날개의 길이가 다섯 규빗이고 높이가 십 규빗이라면 상당히 큰 그룹으로서 사람이 위압을 느낄 정도일 것이다. 그 모양을 '얼굴'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람의 얼굴 모양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고대 시리아의 신전의 그룹도 사람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룹은 '감람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금으로 입혔다(왕상 6:23, 28).[21] 두 그룹의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으로 지성소의 양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그리고 그룹의 날개아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일 것이다. 이 두 그룹은 언약궤 위의 속죄소와 연결된 그룹이 서로 마주 대하면서 속죄소를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출 25:20) 그들의 얼굴이 내전을 향하도록 했다. 날개가 펴진 그룹은 제의와 상관없는 장식용이지만[22] 하나님의 초월성을

---

21) '감람나무'의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기름의 나무'('ᵃṣē-šęmęn)란 말인데 이것은 올리브 나무가 아니다. 이것은 '올리브 나무' 혹은 '야생 올리브'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RSV) '알레포 소나무'를 말한다. 지중해 연안에 자연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로서 높이가 20미터에 이르고 수령은 100-150 정도 된다. M. Zohary, *Plants of the Bible*: A Complete Handbook to all the Plants with 200 Full-color Plates Taken in the Natural Habita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14.

22) D. I. Shin, *The Ark of Yahweh in Redemptive History* (Eugene, Or: Wipf & Stock, 2012), 35.

드러내고 그들이 내전을 향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경계하고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대하 3:14의 휘장의 그룹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3. 성전구조의 주석적 문제점

a.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계단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 지성소와 성소 간의 바닥높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언에서 언급했듯이 비교적 최근 알렙포 인근 아인 다라에서 발견된 주전 이천년기와 천년기 사이의 고고학적 증거는 이방인의 신전의 내소가 몇 단계의 층계로 연결되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3] 이 신전의 구조가 솔로몬의 성전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몇몇 학자들은 그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구성해서 지성소의 지대가 층계를 통해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한다.[24] 그렇지만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로 그 양식을 솔로몬 성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 신전 구조물과 성전의 구조는 유사성은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둘째, 페니키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건립한 신전의 구조를 이스라엘의 성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 기원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성전의 기본구조는

---

23) John Moson, “The New ‘Ain Dara Temple: Closest Solomonic Parallel, ” 20-35.

24) Hershel Shanks, *Jerusalem‘s Temple Mount,* 123-38; Victor Hurowitz, “Solomon’s temple in context, ” *Biblical Archaeology Review* 37 no 2 Mr-Ap (2011): 46-57.

페니키아 신전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성막이라는 말이다. 셋째, 그 층계는 본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성경본문은 성전의 규격과 양식에 대해서 골방의 층계까지도 상세하게 묘사한다(왕상 6:8).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거대한 층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물론 지성소가 성소보다 높은 데 위치할 가능성에 대한 성경적인 암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소의 높이와 지성소의 높이가 다르다는 데서 계단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소의 높이는 삼십 규빗인데 지성소의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는 것은 지성소의 지붕 높이가 십 규빗 낮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관상 높이가 같은 한 건물이 되려면 지성소의 바닥을 높여야 하는데 그때 계단이 필요할 것이다.[25] 그러면 십 규빗 높이의 계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만일 경사가 45도 정도의 계단이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도 십 규빗 즉 4.28 미터일 것이고 그 층계의 길이가 육 미터에 달할 것이다. 성전 안에 아파트 이층 만큼이나 높고 약 육 미터에 달하는 큰 규모의 구조물을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지성소 앞에 계단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본문은 지성소 앞을 설명하면서 층계의 존재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는다: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등대"(왕상 7:49). 만일 지성소가 그렇게 높은 곳에 있었다면 '내소 앞에'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내소 아래에' 혹은 '계단 아래에'라고 표현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그렇게 높은 층계가 있었다면 내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왕상 6:31)을 '들어가다'와 함께 '올라가다'는 말이나 그런 암시를 주는 표현도 사용했어야 했다. 성전 앞에 있는 층계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면(왕상 10:5) 지성소를 향한 성소에 큰 층계가 존재했다면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

25) 성전 전체 지붕의 높이는 삼십 규빗으로 같지만 그 지붕 아래 지성소의 높이를 이십 규빗으로 따로 천장을 만든 것으로 재구성한 것도 있다. Hill, *1 & 2 Chronicles*, 384.

b.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과 문

성경의 독자는 성막과 헤롯 성전을 생각하면서 솔로몬 성전에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26]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역대기는 휘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한글번역은 "휘장문"이라고 했지만 (3:14) 문은 아니고 그냥 휘장(*pārōḵęṯ*)으로 가려 놓은 상태를 말한다. 이 휘장의 역할도 광야의 성막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열왕기 본문은 역대기와는 달리 '감람나무'로 내소의 문을 만들어서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다고 한다(왕상 6:31-32). 여기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역대기 기자가 광야시대의 성막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자신의 의도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27] 또는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 본문 '사슬'을 의미하는 *rattiqōṯ* 와 '휘장'을 의미하는 *pārōḵęṯ* 의 자음이 비슷해서 혼동을 했다고 생각한다.[28] 학자들의 이런 견해는 열왕기의 묘사를 역대기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을 반영해준다. 그렇지만 먼저 기록된 문헌이 역사적으로 더 정확한 기록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두 권의 책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아마도 역대기 본문에 언급된 휘장은 열왕기에서 건너질렀다는 그 금사슬(golden chain)이나 그 쪽에 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역대기에도 지성소에 문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지성소의 문"(대하 4:22). 이

---

26)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에는 언급이 안 되었고, 제2성전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마카비상 1:22에는 제2성전에 몇 개의 휘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헤롯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성막과 같이 휘장으로 구분되었다(마 27:51). Cf. Josephus, *The War of Jews*, V, 5, 5, 219.

27) Japhet, *2 Chronik*, 53.

28) Cf. Rudolph, *Chronikbücher*, 204-5.

히브리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지성소 내부의 문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과 휘장이 둘 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 휘장은 문 앞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소 앞’에 금사슬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관점은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휘장의 색깔은 성막의 휘장과 같은 색상이다(출 26:31). “고운 베로 휘장을 짓고”라는 표현에서도 정성을 들여서 재료를 만들고 휘장을 제작한 것이 드러난다. 이 휘장에 장식된 그룹에 대해서 한글번역은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고 했는데 그 동사는 성막을 제작할 때 ‘수 놓았다’는 의미로 쓴 *rāqam* (출 26:36; 27:16; 28:39; 35:35; 36:37; 38:18, 23; 39:29)과 다른 *ʻālā* (올라가다)의 히필형이다.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올려놓다’인데 여기서는 ‘덧붙이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천으로 만든 그룹의 모양을 휘장에 꿰매어서 부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성소로 통하는 그 휘장과 문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일 년에 한 번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다.

c. 두 기둥: 장식과 이름

성전건축에 관한 마지막 부분으로 두 개의 큰 기둥을 만들어 세운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 단락은 기둥의 장소와 규격 그리고 장식과 두 기둥의 이름에 관한 정보를 준다. 열왕기 본문은 히람이 놋기둥을 만들었다는 정보를 주는데(왕상 7:15) 역대기는 제작자와 소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두 기둥의 장소를 고려할 때 엄격히 말해서 이 기둥은 성전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건물과 연계된 구조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성전 앞 즉 낭실 앞에 세워진 것이다(왕상 7:21; 대하 3:15).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을 언급하기 전에 건축완공 연도에 대해서 알려준다(왕상 6:38).[29]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아인 다라

에서 발견된 페니키아 신전을 따라 성전을 재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본문에 근거해서 이 기둥들이 낭실을 떠받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근거는 열왕기상 6:19이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은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라고 번역했는데(NIV, ESV) 이 '주랑'은 '낭실'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기둥이 성전의 구조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주랑이 수식하는 것은 기둥이 아니라 '백합화 모양'이다. 즉 '주랑에 있는 백합화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는 주랑에 있는 백합화 모양인데 네 규빗이다"로 번역해야 한다(KJV).[30] 그러므로 이 구절에 근거해서 두 기둥이 지붕을 받치는 건물의 일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 기둥의 높이는 성전의 지붕보다 낮은 십팔 규빗이라고 한다(왕상 7:15).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고 각 기둥 꼭대기의 상단부가 다섯 규빗이라고 한다(대하 3:15). 그러나 이 높이는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을 보도하는 데서도 십팔 규빗이라고 일관성을 유지한다(왕하 25:17; 렘 52:21). 그래서 역대기의 본문은 필사상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 수치는 성전의 높이에 기둥의 상단부 길이인 다섯 규빗이 더해진 것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상단부가 다섯 규빗이라는 말은 높이를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 높이는 이십 삼 규빗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둥머리인 상단부는 공같이 둥글게 생겼

29) 시리아 북쪽 주전 팔 세기의 '타이낫 신전'(Ta'yinat Temple)과 연대나 양식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과 가장 가깝다는 '아인 다라 신전'은 두 기둥이 낭실을 떠받들고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Hurowitz, "Solomon's Temple in Context, " 50; Shanks, *Jerusalem's Temple Mount*, 133-8. 그 신전의 페니키아 양식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성경본문은 너무나 명백하게 두 기둥이 성전의 구조물과 분리된 것으로 설명한다.

30) Cf. J. Mulder, *1 Kings Vol. 1: Kings 1-11 HCOT* (Leuven: Peeters, 1998), 312-14; Mordechai Cogan, *1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2001), 263.

다(대하 4:12). 기둥의 규격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높이는 약 10미터, 둘레가 약 5.2미터, 지름이 약 1.7미터가 된다.[31)]

열왕기는 기둥의 장식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역대기 본문은 그 특징만 간결하게 묘사한다(왕상 7:17-20). 물론 둥근 머리와 그물 모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대하 4:12). 그 기둥 머리는 석류 백 개가 달린 사슬로 장식되었다. 열왕기 본문은 기둥의 화려한 장식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기둥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연결시켜 줄 것이다.

특이한 것은 그 두 기둥에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대하 3:17).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울 것이다'란 뜻이고 "보아스"란 '그 안에 힘이 있다'(in him is force) 혹은 '능력으로써'(with power)를 의미한다.[32)] 그런데 왜 이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없다.[33)] 그리고 그 이름이 기둥의 상징적인 의미와

---

31) 두 기둥의 둘레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것을 수정한다. Abright는 십이 규빗은 서기관의 유사한 첫 글자 때문에 난 필사오류(*homoioarkton*)로 보고 이 규빗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한 기둥의 직경이 31센티미터가 된다. William Foxwell Albright, *Archaeology and the Religion of Israel*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47. Busink는 십이 규빗을 두 기둥의 둘레라고 한다. Th. A. Busink, *Der Tempel von Jerusalem von Salomo bis Herodes*: *eine archäologisch-historische Studi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stsemitischen Tempelbaus* (Leiden: Brill, 1980). 302-3.

32) Mulder, *1 Kings*, 319; Michaeli, *Les Livres des Chroniques, d'Esdras et de Néhémie,* 151. 보아스의 의미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다. "바알은 강하다"(ba'al'az)의 약자: Cf. H. Gressmann, *Die Lade Jahwes und das Allerheiligste der Salomonischen Tempels* (Berlin: Kohlhammer, 1920), 62; "예리한 정신의": Martin Noth, *Die Israelitischen Personennamen im Rahmen der Gemeinsemitischen Nemengebung* (Stuttgart: Kohlhammer, 1966), 228; Médebielle는 야긴과 보아스를 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 "그가(야웨)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셨다." Walter Kornfeld, Der Symbolismus der Tempelsäul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sche Wissenschft* 74 (1962): 52. 재인용.

33) Dillard는 이름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한다: ① 기증자나 건축가 이름; ② 다른 신들에 대한 언급; ③ 다윗 시대 이전에 그 자리에 서 있던 '맛체보트'(*maṣṣebōṯ*)의 이름; ④ 신격에 대한 서술(그는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 힘이 있다); ⑤ 동사문으로 "그는 능력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 두 기둥의 의미에 대한 견해도 아주 다양하다. 사람들은 그 기둥을 우주적인 기둥, 신성한 오벨리스크, 신화적인 산, 낙원의 나무,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다.[34] 또한 그 기둥은 성전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전이 야웨의 집이지 바알이나 몰렉의 집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35] 게다가 정치적인 것과 관련하여 이 두 기둥이 야웨의 예루살렘 거주에 대한 역사적 내력을 상징하고 왕궁과 성전을 통해서 통치하는 왕조 국가의 합법성을 가시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6] 정치와 관련하여 이 기둥을 솔로몬 왕권의 상징이나 야웨의 통치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37] 회복과 화목을 이루는 장소인 성전의 기능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일단 그 두 기둥이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고 제사장들이 그 사이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기둥이 문기둥 역할을 한다. 그 통과지점은 성전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된다. 그것은 세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관문의 기능을 지닌다.[38] 거기다가 두 기둥의 위치 그리고 그 규모와 장식이 보여주는 위용과 그것들에 붙여진 이름의 의미('그가 능력으로 굳게 세울 것이다')를 고려한다면 두 기둥은 전체 성전을 자기 백성 가운데 마련된 하나님의 처소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처소가 유지되며 땅위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허물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신약적 관점에서 성전은

로 세우신다"; ⑥ 어느 정도 왕조신탁과 관련된 두 긴 명문의 서언; ⑦ 솔로몬 왕의 조상 이름들. R. B. Dillard, *2 Chronicles*, WBC 15, (Dallas: Word, Incorporated, 1998), 30.

34) Kornfeld, Der Symbolismus der Tempelsäulen, 53; W. Abright, *Archaeology and the Religion of Israel* (Louisville, Ky.;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44-48.

35) Busink. *Der Tempel von Jerusalem von Salomo bis Herodes*, 317.

36) "Jachin and Boaz in religious and political perspective, "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5 no 2 Ap (1983): 167-178.

37) K. Roubos, *II Kronieken*, POT (Nijkerk: G. F. Callenbach, 1972), 43-44.

38) Cogan, *1 Kings*, 271.

사람 곧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의 신약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다(마 16:18).[39]

d. 성전 뜰에 있는 바다

바다는 성전구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전의 기구 중 하나이다. 전체적으로 성전의 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성막의 기구를 확대해서 규모가 커진 것이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큰 물 저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에 인상적으로 첨가되었다.

바다와 관련된 주석상의 문제점은 그 규격에 관한 본문의 진술이 상충되는 것이다. 열왕기 본문에는 바다의 용령이 '이천 밧'으로 되어있고(왕상 7:26) 역대기 본문에는 "삼천 밧"이라고 했다(대하 4:5). 양본문의 전승에 문제가 없다면[40] 도량형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천 밧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도 있지만[41] 최근에도 몇몇 학자들이 삼천 밧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호그네시어스(Hognesius)는 역대기 기자가 모든 것을 크게 묘사하려는 성향을 따라서 "한 규빗과 한 손바닥 넓이"에 해당하는 큰 규빗을 전제했다고 한다.[42] 그러나 이 이론의 문제점은 역대기는 성전구조를 처음 설명할 때부터 "옛날에 쓰던 자"를

39) M. B. van 't Veer, I. *II Koningen*, De Bijbel, Toegelicht voor het Nederlandse volk (Kampen: H. J. Kok, 1948), 49.

40) BHS의 비평자료는 본문의 '천'의 복수형에 해당하는 *'ᵃlāfim*을 쌍수 형태인 *'alpayim*으로 고치고 '삼'을 의미하는 *šᵉlōšęṯ*을 빼고 '이천'을 제안한다.

41) Hollenback은 놋바다를 원통형으로 보고 바빌로니아 계산법을 따라서 한 제곱 규빗은 5과 1/3 밧이지만 히브리 규빗으로는 한 제곱 규빗이 4밧이기 때문에 바다의 용량은 천오백 밧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대 바빌로니아 도량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George M. Hollenback, "The Dimensions and Capacity of the 'Molten Sea' in 1 Kgs 7, 23.26, " *Biblica* 81 (2000): 391-92.

42) Kjell Hognesius, "The capacity of the molten sea in 2 Chronicles iv 5 : a suggestion, " *Vetus Testamentum* 44 no 3 (1994): 349-358.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대하 3:3). 천문학자였던 와일리(Wylie)는 바다의 형태에 대한 개념의 차이 때문에 용량의 차이가 생겼다고 한다. 즉 열왕기 기자는 반구(半球)형태의 바다로 보고 양을 계산했고, 역대기 기자는 원통형의 바다를 생각하고 계산했다는 것이다.[43] 그러나 열왕기의 다른 본문은 바다가 반구형이 아니라 평면에 둘 수 있도록 바닥이 평면인 것을 암시한다(왕하 16:17).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의로 과장해서 기록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44] 꼭 양으로서 삼천 밧과 이천 밧을 일치시키려면 고체와 액체 차이로 보면된다. 곡물같은 경우는 위로 수북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곡물 삼천 밧은 물 이천 밧과 일치한다.[45] 또 다른 해결책은 열왕기 기자는 놋바다에 적정량을 담았을 때를 표현하고 역대기 기자는 가득 찬 물의 양을 기록했다는 것이다.[46] 이것도 가능한 추측이다. 베일(Byl)은 한 밧을 구 리터로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이십 이 리터를 두 밧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한 밧을 대략 십 리터로 볼 때 삼천 밧의 반구형의 바다에 대한 최선의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47] 이런 시도는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도 두 본문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문자적으로 "제사장의 씻기"란 말은 제사장 자신의 결례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성막의 물두멍 기능과 관련된 사항이다(출 30:19; 40:31).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

43) C. C. Wylie, "On king Solomon's Molten Sea, " *Biblical Archaeologist* XII (1949): 86-90.

44) Roubos는 역대기 기자가 그런 의도를 갖고 열왕기 본문을 수정했다고 한다. Roubos, *II Kronieken*, 48.

45) D. Beattie, *The Targum of Ruth and Chronicles* (Edinburgh: T & T Clark. 1994), 149.

46) 두 본문을 다 알고 있는 요세푸스는 놋바다의 용량이 삼천 밧이었다고 한다.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s*, 8.3.5 (80).

47) Byl은 호멜이 나귀 한 마리가 싣는 무게 90킬로인 것을 감안하여 밧을 그 1/10로 계산했다. 그리고 1 킬로그램은 1 리터이기 때문에 밧을 대략 10 리터로 보았다. John Byl, "On the Capacity of Solomon's Molten Sea, " *Vetus Testamentum* 48 no 3 (1998): 309-314.

수많은 짐승의 피로 인하여 늘 수족을 씻어야 했다(대하 29:22).

4. 결어

솔로몬 성전을 재구성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본문수정이나 고고학적 발굴물에 의존해서 극복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본문의 필사상의 오류로 여겨지는 것은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그 오류에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문의 상이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고학적 발굴물에 근거한 성전의 재구성은 흥미로운 것이다. 일단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그런 성전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준다. 그러나 그 고고학적 증거가 본문을 능가할 수는 없다.

성경본문의 증거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층계의 존재에 대한 여지는 없다. 또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나무문과 함께 있었다.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낭실) 앞에 독립된 구조물로 세워졌다. 그리고 바다의 용량에 대한 두 본문의 차이는 도량형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Albright, W. F., Archaeology and the Religion of Israel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Beattie, D., The Targum of Ruth and Chronicles, Edinburgh: T & T Clark. 1994.

Borowski, Elie, "Cherubim: God's Throne?"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1:4 (1995): 36–41.

Busink, Th. A., Der Tempel von Jerusalem von Salomo bis Herodes: eine archäologisch-historische Studi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stsemitischen Tempelbaus, Leiden: Brill, 1980.

Byl, John, "On the Capacity of Solomon's Molten Sea, " Vetus Testamentum 48 no 3 (1998): 309-314.

Cogan, Mordechai, 1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1.

Dillard, R. B., 2 Chronicles, WBC 15, Dallas: Word, Incorporated, 1998.

Fitzmyer, Joseph A., The Genesis Apocryphon of Qumran Cave I: A Commentary, Biblica et Orientalia; Rome, 1966.

Freedman, D. N. and P, O'Conner, "kerub, " in G. J. Botterweck and H.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V (Stuttgart: Kaiser, 1995), 322–34.

Gressmann, H., Die Lade Jahwes und das Allerheiligste der Salomonischen Tempels, Berlin: Kohlhammer, 1920.

Heinemann, O., "Die 'Lade' aus Akazienholz: ägyptische Wurzeln eines israelitischen Kultobjekts?" Biblische Notizen 80 (1995): 32-40.

Hill, A. E., 1 & 2 Chronicle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3.

Hognesius, Kjell, “The capacity of the molten sea in 2 Chronicles iv 5 : a suggestion, ” Vetus Testamentum 44 no 3 (1994): 349-358.

Hollenback, George M., “The Dimensions and Capacity of the ’Molten Sea’ in 1 Kgs 7, 23.26, ” Biblica 81 (2000): 391-92.

Hurowitz, Victor, “Solomon’s temple in context, ” Biblical Archaeology Review 37 no 2 Mr-Ap (2011): 46-57.

Japhet, Sara, 2 Chronik, HThKAT, Freiburg: Herder, 2003.

Josephus, The Works of Josephus: Complete and unabridged. Peabody: Hendrickson, 1987.

Kaufman, A. S., “Determining the Length of the Medium Cubit, ”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6 (1984): 120–32.

Clines, D.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umes 2, 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8.

Koehler L. & W. Baumgartner et al. (ed.),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New York: E.J. Brill, 2000.

Kornfeld, Walter, Der Symbolismus der Tempelsäul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sche Wissenschft 74 (1962), 50-57.Lurker, M., Wörterbuch biblischer Bilder und Symbol, Munich: Kösel Verlag, 1973.

Kraus, H. J., Psalms 60–150, CC,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Lurker, M., Wörterbuch biblischer Bilder und Symbol, Munich: Kösel Verlag, 1973.

Meyers, C. L., “Jachin and Boaz in religious and political perspective, ”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5 no 2 Ap (1983): 167-178.

Michaeli, Frank, Les Livres des Chroniques, d‘Esdras et de Néhémie, Paris; Neuchâtel, 1967.

Mosis, Rudolf,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es, Freiburger theologische Studien, Freiburg: Herder, 1973.

Moson, John, “The New ‘Ain Dara Temple: Closest Solomonic Parallel,” Biblical Archaeology Review May/June (2000): 20-35;

Noth, Martin, Die Israelitischen Personennamen im Rahmen der Gemeinsemitischen Nemengebung, Stuttgart: Kohlhammer, 1966.

Mulder, J., 1 Kings Vol. 1: Kings 1-11 HCOT, Leuven: Peeters, 1998,

Ohmann, H. M., Kronieken van het koninkrijk, Bedum: Scholma, 1991,

Oppenheim, A. L., et al. (ed.),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Oriental Institute, 1956, 52-55.

Powell, M., “Masse und Gewicht, ” in Erich Ebeling et al. (ed),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7, Berlin: Gruyter, 1928, 457–517.

Roubos, K., II Kronieken, POT, Nijkerk: G. F. Callenbach, 1972.

Rudolph, Wilhelm, Chronikbücher, HAT, Tübingen: J. C. B. Mohr, 1955.

Ryken, L.,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Leicester: IVP, 1998.

Seters, John van, The Chronicler’s Account of Solomon’s Temple-Building: A Continuity Theme, in M. P. Graham, et. al. (ed.), The Chronicler as Historian, JSOTSS 23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83-300.

Shanks, Hershel, Jerusalem‘s Temple Mount: From Solomon to the Golden Dome, New York: Continuum, 2007.

Shin, D. I., The Ark of Yahweh in Redemptive History, Eugene, Or: Wipf & Stock, 2012.

Smith, M. A. E., et al, Holman Book of Biblical Charts, Maps, and Reconstructions,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Veer, M. B. van ’t, I. II Koningen, De Bijbel, Toegelicht voor het Nederlandse volk, Kampen: H. J. Kok, 1948.

Wiseman, D. J., Weights and Measures, in Wood, D. R. W. & Marshall, I. H., New Bible Diction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1233-1237.

Wylie, C. C., “On king Solomon’s Molten Sea, ” Biblical Archaeologist XII (1949): 86-90.

Zohary, M., Plants of the Bible: A Complete Handbook to all the Plants with 200 Full-color Plates Taken in the Natural Habita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